

Date: 28 Tishrei 5787 (October 9, 2026)

Torah Portion: B'reshet

Topic: 창조된 세상, 파괴된 세상 (제 3 부)

미슈칸(성막)을 단순히 죄에 대한 보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며, 금송아지 사건과의 관계 또한 주석가들마다 여러 측면에서 이해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을 연결하는 해석의 전통 속에서 성막의 건립은 놀라운 한 깊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즉, 파괴적인 영적 붕괴 이후에도 여호와 엘로힘과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남 예후다(유다)왕국의 역사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아하스 왕의 통치기는 만연한 우상 숭배와 종교적 타락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즈키야 (히스기아)왕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으며, 백성들이 여호와와 맺은 영원한 복이며 생명인 “언약”으로 돌아오도록 독려했습니다. 탈무드는 그의 시대의 실상을 토라에 대한 지식이 비약적으로 확산된 시대로 묘사합니다. (산헤드린 94b)

이처럼 영적 어둠의 한 시대 뒤에는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태어나며 여호와의 토라 말씀의 이해에 놀라운 부흥이 이어졌습니다. 한 세대의 타락이 그 후 연이어 태어난 다음 세대 가운데 의로움을 추구하는 강력한 갈망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앞선 시대의 심각한 퇴락은 그 뒤에 이어진 반전의 회복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에서 반복되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즉, 한 세대의 위대함은 그 세대가 물려받은 실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실패에 대해 그 후대가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은 여호와 엘로힘께로 돌아가는 것, 곧 ‘테슈바’(תשובה 회개; teshuvah)와 하나가 되며, 이 둘의 관계는 절대로 분리해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회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통회로만 여기는데 서 머무는 종교적 정의를 초월합니다.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회개는 여호와 창조주와의 관계를 계명 순종으로 온전히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본래의 신성한 목적으로 다시 “과녁을 맞추는 일”입니다. 테슈바를 통해 사람은 실패의 교훈을 새롭게 순종하는 삶의 토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괴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람직하다거나, 모든 비극이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축복을 낳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토라는 우리에게 고통을 찬양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라는 고통과 실패가 인간의 운명에 대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가르칩니다. 비록 과거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되돌릴 수는 없더라도, 오늘의 영적 깨달음을 통하여 미래는 여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육신과 네뱌쉬를 영원의 빛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영적인 토라의 원리는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적 비전 속에서 가장 온전히 드러납니다. 남 예후다의 전통은 다윈의 가문에서 난 마쉬아흐(메시아)가 인류를 이끌어 여호와 엘로힘(Elohim)의 주권을 인정하게 할 그 한 엘로힘-메시아닉 킹덤의 한 때를 고대합니다. 선지자들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차고(이사야 11:9), 모든 민족이 그분의 옛 길 선한 길에 대한 가르침을 구하게 될 시대(이사야 2:2-4)를 묘사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미래의 회복이 오랜 세월에 걸친 유배와 고난, 도덕적 혼란, 그리고 영적 쇠퇴를 거친 뒤에 드러난다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여호와와의 구원은 총체적 인류 역사와 개인의 모든 실패의 시공간들이, 전지하신 여호와 창조주께서 태초부터 기대하신 신성한 목적을 무효화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드러낼 것입니다.

'토후 바-보후(tohu va-vohu)'— 즉 형체도 없고 텅 빈 상태 —로 시작된 이 세상은 마침내 창조주 여호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구원자께서는 혈통 남 예후다인들이나, 이스라엘이나 먼 땅 끝에 뿌려 심으신 북 이스라엘 영혼들이나, 온 이스라엘 12 지파의 네웨쉬(영혼) 통하여, 본래의도하신 창조 목적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게 도우실 것입니다.

이 때는 창조주 여호와와의 신성한 뜻이 온 민족 가운데 인지되고, 여호와와의 공의로우심이 이스라엘로 거듭 태어난 참 이스라엘의 삶을 다스리는 새로운 창조 세계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앞선 세상들이 주는 교훈은 여호와 엘로힘께서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으셔야 했다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인류가 저질렀던 범법(Anti-Torah)과 실수에 대해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지혜는 완전하지만,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그분의 목적이 펼쳐지는 과정에 참여할 자유와 책임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성취가 무너지고, 영적 노력이 흔들리며, 우리 주변 세상이 어둠에 압도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파괴를 생애의 끝으로 여기려는 미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이끌어내신 바로 여호와 전지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엘로힘께서 우리에게 실패에서 일어나 토라(Torah)에 대한 집중과 순종의 헌신을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단순히 무언가를 건설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기꺼이 다시 세우려는 "의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위대한 영적 승리는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폐허 속에서 더 깊은 지혜와 더 강한 헌신, 그리고 여호와와의 뜻에 대한 더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렇듯 창조 그 자체는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희망"에 관한 끊임없는 가르침이 됩니다. 즉, 쓰러진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부서진 것은 회복될 수 있으며, 끝처럼 보이는 것이 신성한 목적의 더 위대한 성취를 위한 시작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하고 계시는 여호와 엘로힘의 불꽃인 것입니다.

샬롬.

"여호와 엘로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 (창. 2:15)

A Daily Bread

בייה

"또 바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토라 말씀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역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벧후. 3:16)

*다른 성경: 타낙 히브리성경 (모쉐오경-선지서-성문서)